

01 서울시 '아리수' 세계 최고 수준 인정받아



시민과 함께해 온 아리수, UN 공공행정 대상 영예 수돗물 수질관리의 투명성과 고품질화로 높은 평가받아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질공개서비스 'Seoul Water-Now System & 아리수 품질확인제'가 '2009년도 UN 공공행정서비스상(UNPSA, UN Public Service Awards)'의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UN 공공행정상 4개 분야 중 특히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개선분야에서 아리수의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질공개시스템'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청렴도 1위인 서울시의 위상과 국가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쁨을 전했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특히 거버넌스 우수 사례에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상자 선정은 2003년 6월 23일을 'UN 공공 서비스의 날'로 지정한 이래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UN 공공행정네트워크(UNPAN)의 주관 아래 위

원들이 전 세계 공공 기관에서 출품한 사례를 엄정하게 심사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UN 공공행정상에 선정된 정책 우수사례는 UN의 공인 및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되며,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정책 브랜드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달청 나라장터('03년), 정부혁신자수('06년), 법무부 심사서비스('07년), 서울시 사이버정책토론포럼('08년)으로 수상한 전례가 있으나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 있는 공공 서비스 개선분야'에서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상식은 6월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UN총회 의장(H. E. Mr. Miguel d'Escoto Brockmann), UN 사무총장(반기문), 경제사회 사무차장(Sha Zukang)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

02 전국 상수도 분야 종사자 기술교류의 장 열려



신기술 정보공유를 위해 개최된 '2009 상수도 운영관리 워크숍' 상수도 정책 및 우수사례 발표와 발전적인 정책 방향 제시

환경부와 우리 협회는 지자체들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상수도 종사자들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질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16일~17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 현대호텔에서 '2009 상수도 운영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4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환경부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추진된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갔다.

또한 저수조 설치기준, 청소업규제 합리화 등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낮은 상수도 유수율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수중 유기물 제거 효율에 대한 소개, 표준정수처리공정 냄새물질 제어방안 및 고도정수 처리의 입상활성탄 재생 시점에 관한 연구 등을 발표하며 신기술 정보 공유를 통한 열띤 토

론의 장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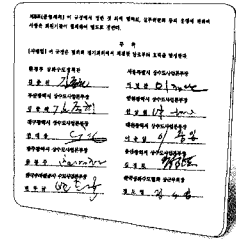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8년 정수장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광양시 상수도사업소의 '중·소규모 정수시설의 저비용 고효율 운영사례'와 경북 성주군의 '관말이토사설 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사례와 배급수 관망의 누수저감을 위한 수압관리 최적화 사례' 등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수도분야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돗물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본 워크숍의 정보교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경쟁력 있는 물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주군 환경보호과 김용숙 씨 등 8명이 맑은 물 공급에 힘쓴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03

대한민국 수돗물의 명예 우리가 지킨다!



수돗물홍보협의회 공식 출범 환경부를 비롯한 지자체·수공 등 수도사업자 중심으로 종합홍보 전개

환경부와 서울시 등 7개 특·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돗물 소비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홍보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수돗물 공급 주체인 지자체 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수돗물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활동과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공동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음용 형태와 빈도분석 등 복합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한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해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환경, 홍보, 경제, 의학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된 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소비자가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협의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돗물 홍보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경제적 음용수인 수돗물이 항상 국민 가까이 있음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협의회 출범 의의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수돗물관련 기관들이 장기적인 홍보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어서 수돗물 신뢰회복은 물론 장차 우리나라 상수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동 신규 사업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04 물질약 홍보전략경연으로 미래 PR전문가 발굴



물질약 홍보전략 주제로 '제4회 대학생 물사랑 홍보 콘테스트' 개최 '氷포트라이트' 팀 대상의 영예, 15개 팀 총 1,850만 원 상금 수여

환경부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한국광고홍보학회 주관한 '제4회 대학생 물사랑 홍보 콘테스트' 본선이 6월 3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5월 11일부터 10일간 접수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67개 대학에서 154개 팀, 총 530명이 응모해 15개 팀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들은 이날 장장 5시간에 걸쳐 각자 준비해 온 물질약 대국민 홍보전략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자체 제작한 라디오 광고를 시연하며 국민들을 자발적으로 물질약에 동참시키기 위해 대학생다운 참신한 홍보전략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본선 직후 거행된 시상식에서는 한세대학교의 '氷포트라이트' 팀이 물사랑 대상을, '雋水강' 팀과 '물지킴이 水호천사' 팀이 최우수상

을, '물이 머문 곳은 네모다', '온수', 'ManaMana' 팀이 우수상을 받고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상했다. 그 외 9개 팀에게는 한국광고홍보학회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참가한 팀 전원에게 총 1,850만 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미래자원"이라며, "대학생들의 패기 넘치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모전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물질약 습관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향후 이번 공모전과 같은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